

Vanillin시장 “혼란” 상황

UBE · Euro · 중국산 등 과당경쟁 ... 롱프랑 71% 점유

국내 Vanillin시장이 가격상승과 시장 점유를 두고 혼란한 상황에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메이커들의 과당경쟁으로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되었던 바닐린이 ITT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20~30%의 가격 상승을 보였으며 앞으로 2자리수의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지속적인 엔고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당 가격경쟁으로 저가로 공급되던 바닐린시장에서 ITT가 공급을 중단·철수하면서 그 시장을 놓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나 최근 공급의 일시적 감소와 더이상 저가의 가격경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들어 노르웨이산 바닐린이 수입되면서 기존 생산기업들과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국내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12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93년말부터 20~30% 상승하여, 현재 15~17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바닐린 공급기업은 롱프랑을 비롯해, 일본의 UBE, 유럽의 Euro Vanillin 등이 있으며 롱프랑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별 공급량은 롱프랑 50톤을 비롯해 UBE 9.5톤, Euro Vanillin 7.4톤이며 최근 저가의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가격은 공급기업과 수요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무역상사를 통해 수요기업에 공급되고 있는 가격은 KG당 1만8000원 내외이며 천연 바닐린의 경우 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공급되는 바닐린은 페놀을 주원료로 한 Guaiacol 바닐린과 펄프에서 추출한 Lignin 바닐린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원희트레이딩이 롱프랑제품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으며, 신성무역이 Euro Vanillin의 Lignin 바닐린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외에 영림화학이 UBE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닐린은 80% 이상 제과용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빵 및 육가공, 아이스크림, 초콜렛, 그리고 제약용으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바닐린의 수요량은 제과기업의 수요증가로 92년 60톤에서 93년도 70톤으로 17% 증가했으며, 최근 제과업의 둔화로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닐린 수입현황(1993) (단위: KG, 달러)		
구 분	중 량	금 액
미 국	49,700	647,000
일 본	9,552	132,000
노르웨이	7,400	106,000
중 국	3,500	35,000
합 계	70,152	920,000